

2021-1학기

강의페이지링 수강신청 안내



‘강의페어링’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강의에서 학습한 지식, 방법,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과제(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융복합 혹은 강의 통합 활동

* 페어링 대상 과목 제한 없음(수강했던 모든 전공, 교양과목 가능)

* 학수구분: 교양선택/1학점

* 소개영상: <https://youtu.be/rn7imzm1dsl>

* 평가방법: 절대평가 적용(A/B/F)

<https://youtu.be/e-q76lsxESA>

수강신청 방법?

AIMS2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내 AIMS2에서 ‘강의페어링1’, ‘강의페어링2’, ‘강의페어링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강의페어링’ 예시



과목1

과목2

아이디어(연구계획)

미디어프로젝트

+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기초도형의 사용

재료과학2

+

북한사회의 이해

=

저수지 태양광 발전을 통한 북한의 전력난 해소

IT프로그래밍

+

생산시스템운영 및
실습

=

학우들을 위한 수요예측 코딩

수업 운영



STEP 1

'AIMS2'에서
수강신청

→ 이메일, 또는 Bb로
연구계획서 제출



STEP 2

지도교수와의 면담
및 개인 과제 진행

→ 이메일, 또는 Bb로
상담일지 제출



STEP 3

중간발표

→ 중간고사 기간 후
(예정)

수업 운영



STEP 4

지도교수와의 면담,
공모전 포스터 준비

→ 이메일, 또는 Bb로
상담일지 제출



STEP 5

공모전 참여
포스터 전시 및 발표
(기말고사 대체)



STEP 6

최종보고서 제출

→ 이메일, 또는 Bb로
제출

참여학생 후기1

디지털미디어학과 이** (2018-2학기, 전공+전공)

-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내가 한 연구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방향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과목들은 보통 해당 학기가 끝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강의피어링을 수강하면서 오히려 그 과목을 좀 더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학생 후기2

화학공학과 민** (2015-2학기, 교양+전공)

-솔직히 말하면 강의페어링은 꼭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을 배웠으면 그 과목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다들 매우 잘하지만 방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페어링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전공을 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AQ

Q. 강의페어링 신청 대상 강의는 무엇이 있나요?

- 현재까지 수강한 모든 전공/교양 과목 중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과목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페어링 강의 개수도 제한 없습니다. 교양+교양, 전공+전공, 교양+전공 등 다양한 페어링이 가능하니 자유롭게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Q. 강의페어링1/2/3의 차이는 뭔가요?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한가요?

- 강의페어링1,2,3은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는 과목으로 전 학부, 전 학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학기에 강의페어링1을 수강했다면 이번 학기는 강의페어링2를 수강 하셔도 되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단, 동일 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재수강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학년 1학기부터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교양이나 기초과목만 배우기 때문에 강의페어링 연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FAQ

Q. 중도 포기 가능한가요?

- 수강철회(수강포기)기간에 포기 가능하며, 이외에는 중도포기 불가합니다.

Q. 지도교수님은 한 분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강의페어링1,2,3 담당 교원 외에 페어링 하고자 하는 담당 과목 교수님께도 면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도 됩니다.

Q. 공모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공모전 참여는 필수이며 공모전 전시 발표를 통하여 발표능력 향상시키고, 본인의 연구를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상식과 부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